

영연방 3국과의 FTA와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 개요

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간 FTA가 2014년 12월 12일 호주에 이어 금년 1월 1일 캐나다도 발효되었으며 뉴질랜드와는 금년 3월 23일 정부간 정식 서명을 마치고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들 3국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에 비해 넓은 국토를 바탕으로 곡물과 축산업이 발달한 농업 강국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내지 6만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미 FTA에 이어 이들 3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을 비롯한 국내 농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별 FTA의 농업분야 양허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이행 상황을 전망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02 FTA 협정별 주요 내용

1. 한·호주 FTA

호주는 밀과 보리, 수수 등 곡물류 외에 사탕수수와 면화 생산량이 많다. 특히 광범위한 초지에서 연간 4백만 톤 이상의 쇠고기와 2백만 톤을 넘는 닭고기, 그리고 백만 톤 이상의 양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은 21억 8천만 달러, 수출은 1억 달러였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쇠고기, 밀, 사탕수수당, 면화, 보리, 낙농품 등이다. 호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쇠고기 수입대상국으로 2013~14년 평균 쇠고기 수입액의 절반이 넘는 8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호주와의 FTA에서 40%인 쇠고기 관세는 15년간 철폐되며 농산물 세이프 가드(ASG)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현행 관세율 1.8%인 밀은 즉시 철폐 대상이며, 보리는 양허제외 되었으나 맥아와 맥주맥은 관세율 쿼터(TRQ)를 배정하는 조건으로 15년 철폐이며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낙농품 가운데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양허제외하였지만 조제분유와 혼합분유는 각각 13년과 15년 철폐, 그리고 치즈는 TRQ 제공 조건부로 13년에서 20년까지 장기간 철폐한다. 또한 관세율 89%인 버터는 15년간 철폐하는 대신 TRQ를 제공하였다.

2. 한·캐나다 FTA

캐나다의 주요 농산물은 밀과 보리, 대두, 귀리 등 곡물류 외에 생산액 1위인 카놀라유(유채유)의 원료인 평지씨가 연간 천만톤 이상 생산된다. 특히 넓은 초지와 사료작물을 원료로 축산업이 발달하여 쇠고기(연간 약 120만 톤)와 돼지고기(약 2백만 톤), 닭고기(연간 약 백만 톤)가 주요 생산물이다. 낙농가는 감소하고 있으나 우유 생산량은 증가 추세이며 버터와 치즈, 분유 등이 생산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억 2천만 달러, 수출액은 7천만 달러였다. 주요 수입품목은 밀과 돼지고기, 쇠고기, 카놀라유(유채유), 낙농품, 보리 등이다.

캐나다와의 FTA 협정에서 수입액이 가장 많은 밀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보리는 TRQ 제공 조건부로 15년 철폐에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맥아는 TRQ 제공 대신 12년 철폐로 양허하였다. 쇠고기는 호주와 같이 15년 철폐되지만 긴급관세가 부과되며 돼지고기도 13년 동안 철폐되지만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카놀라유(유채유) 관세는 3년에서 7년간 철폐되며 낙농품은 분유와 치즈, 버터 모두 양허 제외되었다. 호주와 달리 천연꿀은 TRQ 조건부 현행세율이 유지되며 인조꿀은 10년 철폐다.

3. 한·뉴질랜드 FTA

뉴질랜드는 축산강국으로서 소 사육두수가 천만 두, 양 사육두수는 3천만 두를 넘는다. 과일은 사과와 키위, 포도가 많이 생산되며 채소류는 양파와 호박, 토마토 등이 생산된다. 식량작물은 감자와 밀, 보리, 옥수수 등이 주로 내수용으로 소비된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는 낙농품 생산은 우유가 약 7백만 톤, 전지분유 90만 톤, 탈지분유 40만 톤, 버터 50만 톤, 그리고 치즈가 약 30만 톤 정도 생산된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농축산물은 치즈를 비롯한 낙농품이 가장 많고 쇠고기와 키위, 기타 축산조제품 등이다. 그 밖에 소시지 가공 원료로 쓰이는 양장과 호박, 녹용도 최근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3월 양국 정부간 정식 서명을 완료한 뉴질랜드와의 FTA 양허안에 따르면 치즈 관세는 TRQ 제공 조건부로 12년에서 15년간 철폐되며, 특히 체다치즈는 TRQ 제공과 7년 철폐될 예정이다. 버터는 TRQ 제공과 10년 철폐 대상이다. 분유 가운데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는 TRQ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관세율을 유지하며 조제분유는 TRQ 조건부로 13년에서 15년간 철폐되고 혼합분유는 10년과 15년간 철폐된다. 쇠고기 관세는 호주 및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15년 철폐하되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키위 관세 45%는 6년간 철폐되며 호박은 계절관세로 양허하여 우리나라 수확기에는 현행세율 27%가 유지되지만 다른 기간에는 5년에 걸쳐 철폐된다. 그 밖에 사과, 배 등 과실류와 천연꿀과 인조꿀, 그리고 인삼류 등은 모두 양허 제외되었다.

03 영연방 3국과의 FTA 이행 전망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산 쇠고기와 낙농품,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낙농품, 그리고 뉴질랜드산 낙농품과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영연방 3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쇠고기 관세는 모두 15년간 철폐하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부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뉴질랜드와 호주에는 양허 제외(냉동 삼겹살) 하였지만 주요 수출국의 하나인 캐나다에는 13년 철폐와 긴급관세로 양허하여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낙농품도 수출경쟁력이 3국 가운데 가장 낮은 캐나다에는 양허 제외하였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대부분 15년 이내에 철폐된다. 특히 낙농강국 뉴질랜드산 치즈와 버터, 분유는 호주보다 짧은 기간에 관세를 철폐하게 되어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3국의 소 사육두수는 약 5천만 두로 우리나라의 15배이며 쇠고기 생산량도 약 15배인 423만 톤에 달한다. 이들 3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생산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163만 톤으로 우리나라 수입량의 6배가 넘는다. 특히 쇠고기 생산비는 우리나라가 호주나 캐나다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영연방 3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 경우 두가지 효과에 의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관세 철폐에 따라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기존 쇠고기 수입국에서 가격이 낮아진 이들 3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이다.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한육우 생산이 감소하는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 그동안 쇠고기 국내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한육우 농가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쇠고기 가격 하락의 소비대체효과로 인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들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쇠고기 수입 증가의 파급효과가 다른 품목들의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돼지고기와 낙농품 수입도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통해 국내 축산업은 물론 다른 품목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04 농업부문에의 시사점과 대응방안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육류 및 낙농품 수입이 본격적으로 개방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에도 점진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수입이 늘어났지만 일인당 소비량 증가와 인구 증가에 따라 국내 수요가 더 빠르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쇠고기 수입은 1995년 14만 7천 톤에서 2013년 25만 7천 톤으로 늘어났지만 국내 생산은 15만 5천 톤에서 26만 톤으로 늘어났다.

일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같은 기간 6.7kg에서 10.3kg으로 54%나 증가한데다 전체 인구도 4,509만 명에서 5,022만 명으로 11.4% 늘어났기 때문이다.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도 각각 증가했지만 국내 생산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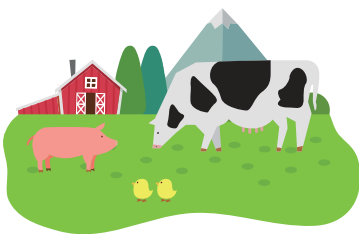
하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 낙농품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영연방 3국과의 FTA 발효에 따라 국내 축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낮은 가격의 육류 및 낙농품 수입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국내 인구 증가 추세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일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감소하면서 육류 소비량 증가세도 둔화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 기존 FTA 국내대책의 성과 평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FTA 협정이 타결될 때마다 급조되어 시행된 여러 정책들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정 구조개혁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의 운용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과 농업농촌 체질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그리고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입 농축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맞춤형 미래농업은 건강과 안전성, 환경보전 및 여가와 치유를 지향하는 농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농정 제도 정비와 함께 농촌지역의 창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산부문 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부문의 정비도 필요하다. 우선 육류의 품질등급제와 생산이력추적제를 확대 시행 및 정착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확산을 통한 식품안전성 제고가 시급하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강화와 정착을 통해 축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품종 개량과 가공기술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주요내용과 시사점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의의와 주요 협상 내용

최근 한국은 수년 간 교착상태에 있던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양자 FTA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먼저 한·호주 FTA는 2010년 5월 제5차 공식협상 후 쇠고기, 낙농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의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단되었다가 2013년 11월 협상이 재개되었고, 2014년 4월 공식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발효되었다. 한·캐나다 FTA는 2008년 3월까지 13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캐나다 측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로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2013년 11월 제14차 공식협상이 재개되어 2014년 9월 정식서명을 마쳤고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뉴질랜드 FTA는 2010년 5월 제4차 공식협상 후 진전이 없다가 2014년 2월에 제5차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FTA 협상타결을 선언하였고 2015년 3월 정식서명까지 마친 상황이다.

영연방 3개국은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들로,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과의 교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¹⁾

1) 2012년 기준(World Bank) 호주의 1인당 GDP는 6만 7,512달러, 캐나다는 5만 2,413달러, 뉴질랜드는 3만 8,897달러였고,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 4,454달러였음.

즉 양측 간 교역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제품, 전자제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영연방 3개국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하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FTA에서 양국은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할 수 있었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뉴질랜드 FTA에서도 뉴질랜드는 모든 품목에 대해 7년 이내에, 한국은 대다수 품목에 대해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FTA 협상에서 한국의 관심품목이 되어왔던 승용차와 쇠고기에 대한 양허내용은 3개 FTA에서 유사한 수준이다. 승용차에 대하여 영연방 3개국은 3년 내 관세철폐를 약속하였고(뉴질랜드에서는 이미 무관세 품목), 쇠고기에 대하여 한국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하고 15년 철폐에 합의하였다.

단위 : %

표 1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구분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국	호주	한국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즉시철폐	75.2/72.4	90.9/86.3	81.9/87.0	76.4/64.1	76.5/48.3	85.7/92.0
10년 내	94.3/94.6	100/100	97.5/98.4	97.5/98.7	93.9/78.3	100/100
그 외	4.3/5.3	-	0.7/1.2	0.3/1.3	4.3/20.1	-
현행관세 및 양허제외	1.4/0.2	-	1.8/0.5	2.2/0.0	1.8/1.6	-

주 1) (품목 수 비중/수입액 비중) 순으로 작성.
2) 그 외 유형에는 10년 초과, 부분감축, 계절관세가 포함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각 FTA 상세설명자료.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이미 무역자유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의 FTA였던 만큼 서비스 및 투자를 비롯한 비상품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호주 FTA에서 양국은 각각 미국과의 FTA 수준으로 서비스 및 투자시장을 개방하고 ISD 조항을 도입하였으며, 정부조달에 대한 시장접근을 약속하였다.²⁾

2)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회원국인바 이번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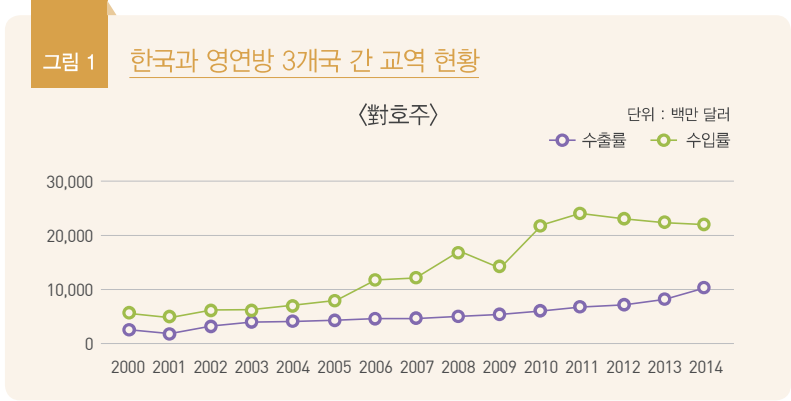
교역·투자
현황 및
전망

한·캐나다 FTA에서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 및 투자 규범을 채택하고 ISD를 규정하였으며, 상호간 WTO GPA보다 높은 수준의 중앙정부 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한·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는 사전투자심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고,³ 시청각 공동제작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부속서로 포함하였다.

또한 FTA 체결을 계기로 현재 운영 중인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개선하고 별도의 비자쿼터(일시고용입국,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하기 위한 합의서한을 교환하였다.⁴

200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한국과 영연방 3개국 간 교역규모는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확대되고 있다.⁵ 수출보다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규모가 큰 관계로 이들 3개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호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기도 하나 최근 3년간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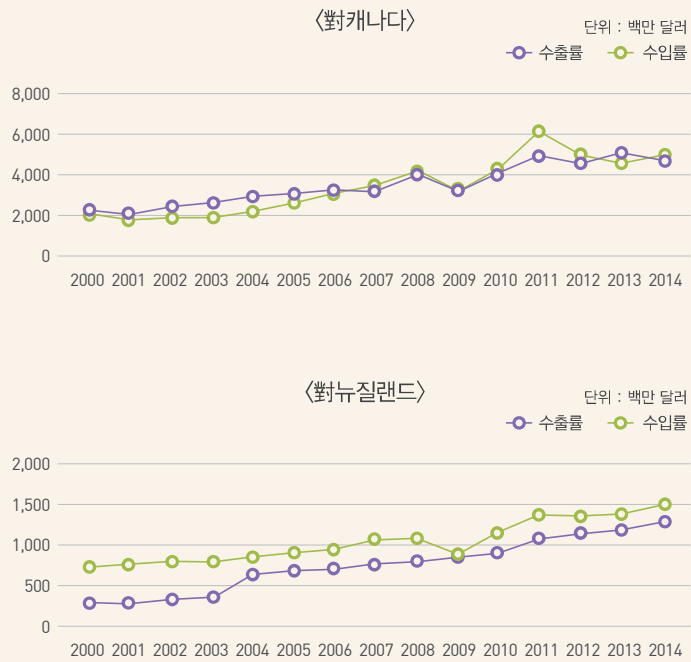


3)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질랜드달러 이하로 설정하였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 뉴질랜드달러로 상향함.

4)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대한 연간 쿼터를 현재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연수·교육 및 고용기간 제한 조건을 완화하였음.

5)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각국 수출에서 호주는 11위, 캐나다 24위, 뉴질랜드는 43위였으며, 수입에서는 호주 7위, 캐나다 20위, 뉴질랜드가 40위였음.

그림 1 한국과 영연방 3개국 간 교역 현황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통계

각 국가와의 주요 교역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하여 주로 석유제품과 승용차를, 캐나다에 대해서는 승용차 및 관련 부품, 무선전화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연방 3개국의 높은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출품목도 일부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수입은 3국 공통으로 천연자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가축육류(쇠고기), 뉴질랜드에서 기타 석유화학제품(메틸알코올), 캐나다에서는 펄프의 수입도 많다. 이러한 교역상황에서 한국은 이번 FTA를 통해 영연방 3개국에 대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3개국에 비해 한국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약화될 수 있다.

표 2
한국과 영연방 3개국 간
주요 교역품목 (2014년 기준)

구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명	비중(%)	품명	비중(%)
대호주	경유	24.0	철광	27.6
	승용차	17.3	유연탄	24.6
	휘발유	8.9	원유	10.6
	철구조물	8.4	가축육류	4.8
	제트유 및 등유	6.9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1
대캐나다	승용차	44.0	유연탄	24.5
	무선전화기	6.5	동광	10.5
	자동차부품	5.5	철광	5.3
	타이어	1.9	우리늄	5.1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1.7	펄프	4.7
대뉴질랜드	휘발유	25.4	기타 석유화학제품	22.5
	승용차	16.0	원목	22.4
	경유	15.8	낙농품	9.2
	건설중장비	4.3	가축육류	8.1
	제트유 및 등유	4.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5.9

주 1) 품명은 MTI 4단위 기준.

2) 비중은 2014년 한국의 대각국 전체 수출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통계.

한편, 최근 5년 동안 한국과 영연방 3개국 사이의 투자규모는 미미한 편이었다. 2014년 3개국의 대한국 투자(FDI)는 7억 1,28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 투자의 3.8% 수준이었고, 한국의 3개국에 대한 투자(OFDI)는 약 24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6.9%를 차지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호주의 경우 한국의 의약산업, 부동산·임대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에 주로 투자하였고 캐나다는 금속산업과 금융·보험업, 뉴질랜드는 건설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에 대한 직접투자는 광업을 중심으로 그 밖에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활발한 편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연방 3개국과의 FTA에서 ISD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투자 규범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과 이들 3개국

사이의 투자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교류 확대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장기적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단위 : 백만달러, 신고금액 기준

표 3
한국과 영연방
3개국 간 투자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외국인직접투자 (FDI)	518.3 [4.0]	829.8 [6.1]	546.8 [3.4]	438.6 [3.0]	712.8 [3.8]
해외직접투자 (OFDI)	1,734.6 [5.0]	6,077.8 [13.3]	5,308.4 [13.4]	2,610.7 [7.3]	2,404.3 [6.9]

주 : () 한국의 전체 IFDI와 OFDI에서 3개국 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시사점

이미 개방수준이 높은 영연방 3개국과의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하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이번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점유율을 확대·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영연방 3개국의 FTA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호주는 미국, 일본과의 FTA를 발효 중이고 중국과의 FTA도 타결하였다.⁶ 캐나다는 EU와의 FTA를 마무리 하였고, 뉴질랜드는 2008년부터 중국과의 FTA를 발효 중이다(표4 참고).

제조업 품목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세 및 비관세 혜택을 누리면서, 영연방 3개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상태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크게 상승한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비교하면 2013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각각 4.1%, 1.6%, 4.1%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그림 2 참고).⁷

6) 한·호주 FTA가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면서 20일 만에 2년차 감축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2015년 4월 1일에 2년차 감축이 시작되는 일·호주 FTA보다 관세철폐 시기가 3개월 빠르게 됨
7) 2002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수입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0.1%, 4.7%, 8.0%였고,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3.7%, 1.4%, 2.4%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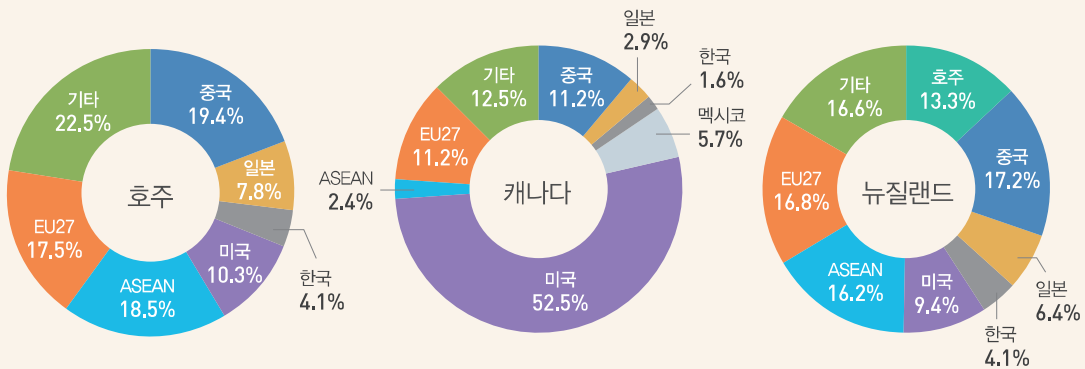
이에 대응하여 한국기업들은 우선 내부적으로 상대국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도록 수출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품목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 4
영연방 3개국의 FTA 체결 현황 (2015.6.24 기준)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발효	뉴질랜드('83.1), 싱가포르('03.7), 미국('05.1), 태국('05.1), 칠레('09.3), 뉴질랜드·ASEAN('10.1), 말레이시아('13.1), 한국('14.12), 일본('15.1)	NAFTA('94.1), 이스라엘('97.1), 칠레('97.7), 코스타리카('02.11), EFTA('09.7), 페루('09.8), 콜롬비아('11.8), 요르단('12.10), 파나마('13.4), 온두라스('14.10), 한국('15.1)	호주('83.1), 싱가포르('01.1), 태국('05.7), P4('06.5), 중국('08.10), 호주·ASEAN('10.1), 말레이시아('10.8), 홍콩('11.1)
타결	중국('14.11)	EU('14.8)	GCC('09.10), 한국('14.11)

자료 : 각국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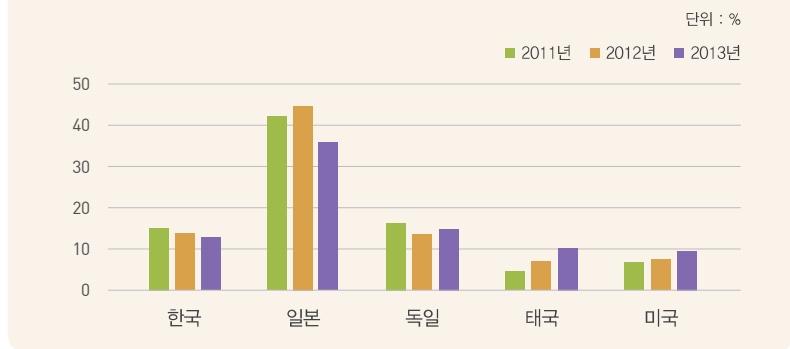
그림 2 영연방 3개국의 전체 수입에 대한 국가별 시장점유율 비교 (2013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또한 우리 기업들은 이번 FTA를 계기로 영연방 3개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1~2013년 기간 동안 호주의 수입자동차시장 현황을 보면, 한국산 자동차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 참고).

그림 3 호주 수입자동차시장점유율 현황 (2011~2013)



주 : 여기서 자동차는 SITC 기준.

자료 : 호주 외교통상부, 『Composition of Trade Australia』(2013-14)을 토대로 저자 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한·호주 FTA는 향후 태국산 일본차에 의해 잠식당하던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을 회복하고 우리기업들이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캐나다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FTA를 체결하였고, 뉴질랜드와의 FTA를 일본과 미국보다 한 발 앞서 타결하였다는 점도 앞으로 한국제품의 시장선점효과 확보·유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번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이행하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3개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인바 향후 제조업 관련 부가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한국의 대세계 부가가치 교역 증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연방 3개국 FTA 의미와 전망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영연방 3개국 FTA 추진 동향

2015년 3월 한·뉴질랜드 FTA가 정식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호주(2014.12.12.발효), 캐나다(2015.1.1.발효)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영연방 3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으며 현재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위한 국회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3건의 FTA는 한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13년 협상이 재개된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발효 중인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더불어 가장 마지막으로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까지 연내 발효될 경우 3개의 FTA가 협상 재개 2년 만에 타결에서 발효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한·미, 한·EU FTA를 잇는 선진국과의 FTA로서 상품,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이다. 특히 3개국은 우리나라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의 참여국이자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3개국과의 FTA를 통해 북미와 유럽에 이어 오세아니아까지 FTA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영연방 3개국의
FTA 추진 동향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발효	9건 15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태국, 칠레, 뉴질랜드·ASEAN,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11건 15개국 NAFTA,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EFTA,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 온두라스, 한국	9건 14개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P4(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중국, 호주·ASEAN,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타결	1건 1개국 중국	1건 28개국 EU	2건 7개국 한국, GCC

영연방 3개국 경제의 특징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현황

영연방 3개국 중 인구규모가 가장 큰 캐나다의 경우, 총 인구는 약 3,550만 명으로 우리나라(5,040만 명)보다 작은 규모이며,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1/11 수준인 450만 명에 그친다. 비록 인구규모는 크지 않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모두 구매력이 높은 안정적인 시장으로 IMF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호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1천 달러에 달하며, 3개국 모두 4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즉, 생활수준과 소비여력이 높은 전형적인 선진국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전통적으로 영연방 3개국은 미국, 영국 등 유럽권 국가의 영향력이 컸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과 물적, 인적 교류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기대되는 국가이다.

표 2

영연방 3개국의 경제현황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명목 GDP(십억 달러)	1,444	1,789	198	1,417
1인당 GDP(달러)	61,219	50,398	43,837	28,101
인구(백만 명)	23.6	35.5	4.5	50.4

자료 : IMF WEO(2015.4월)

수출규모면에서 살펴볼 때 영연방 3개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014년 기준으로 수출규모가 가장 큰 호주의 경우 우리의 11위 수출국이며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각각 24위, 43위에 랭크되었다.

이처럼 수출비중이 작은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연방 3개국과의 FTA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원자재를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3개국과의 교역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와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는 호주로부터 철광, 유연탄, 원유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유연탄과 펄프, 뉴질랜드는 원목의 주요 공급처로서 우리나라는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등에 필요한 원자재를 3개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영연방 3개국 중에서도 자원 수입규모가 가장 큰 호주에 대해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단위 : 억 달러, %

표 3
우리나라의 對영연방
3개국 교역현황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014	2015.1~5	2014	2015.1~5	2014	2015.1~5
수출	금액	102.8	49.7	49.2	19.9	17.3	5.4
	(증가율)	7.5	22.8	-5.5	-9.7	16.1	-30.3
	순위	11	10	24	23	43	49
수입	금액	204.1	70.6	54.4	18.3	15.3	5.6
	(증가율)	-1.8	-20.2	15.4	-17.0	9.4	-14.4
	순위	7	7	20	24	40	37
무역	금액	307.0	120.3	103.6	38.2	32.6	11.0
	(증가율)	1.1	-6.7	4.4	-13.3	12.8	-23.1
	순위	7	8	23	25	40	42
수지	금액	-101.3	-20.9	-5.3	1.5	2.0	-0.2
	순위	243	242	220	38	57	207

자료 :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FTA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한편 영연방 3개국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농산품의 경우 수입 관세율이 3.0%(평균 MFN 실행관세율) 미만이다. 특히 뉴질랜드는 평균 MFN 실행세율이 2.0%로 13.3%인 우리나라에 비해 관세 장벽이 낮고 대부분의 수출 주력 상품에 대해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FTA로 인한 즉각적인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

표 4
영연방 3개국의 평균 실행
관세율(simple average
MFN applied) 비교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농산품	1.2	15.9	1.4	52.7
공산품	3.0	2.3	2.2	6.8
전품목	2.7	4.2	2.0	13.3

자료 : WTO

다만,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FTA를 통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측은 자동차에 대해 FTA 발효 즉시 또는 3년 내에 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여 이미 2014년 12월 발효 당시 중소형 기술린 자동차를 포함한 주력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그 외에도 디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이 2016년부터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므로 향후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호주의 시장 환경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포드, GM,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2016~2017년에 호주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는 곧 호주의 자동차 수요가 수입 중심체제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FTA의 관세인하효과에 따른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캐나다 역시 승용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캐나다 국내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수입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에는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인 크라이슬러, 포드, GM은 물론 일본 자동차 메이커인 혼다, 토요타의 생산기지가 있으나, 인건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전기료 인상 등으로 생산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승용차의 6.1% 관세 철폐시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는 상위 10대 교역국이 미국과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 국가일 정도로 아시아와의 교역비중이 높다. 2013년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보수야당이 들어선 이후 FTA 추진을 본격화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과의 FTA도 완료한 상태이다.

호주는 철광, 유연탄, 원유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자 농축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이다. 반면 공산품에 대한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이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99.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발효 후 10년 이내에 94.3%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을 포함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 수단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의 호주 수출은 주로 석유제품과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다. 석유제품은 기존 무관세 품목으로 FTA의 영향은 없지만 자동차의 경우 5%의 관세가 철폐되어 FTA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호주가 EU와의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최근 호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철강재 구조물, 튜빙 등 금속제품과 기계, 가전제품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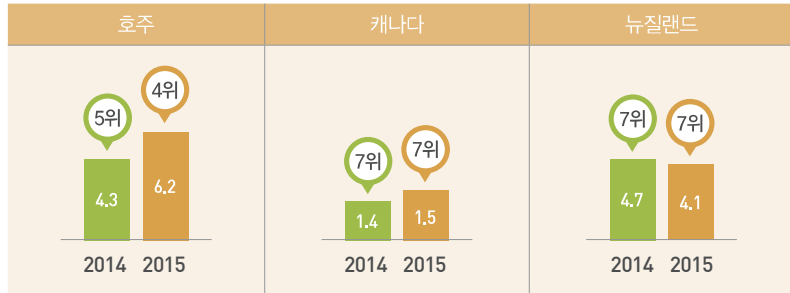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실제로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2015.1~4월 기준)로 수입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에서 미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높다.

HS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송기계(HS 87), 기계(HS 84), 광물·연료(HS 27), 전기전자(HS 85), 플라스틱제품(HS 39), 귀금속·주화(HS 71), 광학제품(HS 90), 의약품(HS 30), 철강제품(HS 73), 가구류(HS 94) 등 상위 10개 품목 모두에서 미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캐나다 수입시장 내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5%를 기록하며 미국(53.8%), 중국(11.8%), 멕시코(5.6%), 독일(3.1%), 일본(2.9%), 영국(1.8%) 등에 이어 2009년부터 꾸준히 7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가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호주 수출 상위 20개 품목(HS 10단위 기준, 무세품목 제외) 대부분이 3년 이내 철폐된다. FTA를 통해 NAFTA 국가들과 관세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캐나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캐나다로서는 한·캐나다 FTA가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인 만큼 중국, 일본에 비해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표 5
우리나라의 영연방
3개국 수입시장 점유율



주1 : 순위는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순위

주2 : 2015년은 2015.1~4월의 누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반면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1차 산업에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촬영지로 농축산업 뿐 아니라 영화산업과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굴뚝이 없는 국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양국 간의 FTA는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두 나라의 교역을 보다 확대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뉴질랜드 FTA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한국 수출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뉴질랜드 수출품의 96.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 내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공작기계, 지게차 등의 건설용 중장비와 냉장고 등 전자기기 품목에 부과되는 5%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지진 재건 사업과 뉴질랜드 내의 도로 등의 인프라, 주택건설로 인한 뉴질랜드의 건설 수요 확대는 건설 자재와 설비 수출 전망을 밝게 한다. 한·뉴질랜드 FTA는 관세철폐를 통한 상품 분야의 수출 확대 뿐 아니라 포괄적인 FTA 추진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인력교류, 농림수산분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시청각 공동제작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뉴질랜드와의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영연방 3개국이 공산품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관세율이 낮아 FTA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를 비추어 볼 때 기존 수출 품목의 수출 증대 외에도 새로운 상품이 수출되고, 거래기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FTA는 관세 인하 외에도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기업들은 FTA를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따라서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통해서도 품목다변화와 수출기업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이러한 효과가 가시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입측면에서 보면, 영연방 3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낙농품·육류·과실에 대한 관세인하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품목의 가격 인하와 다양화가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에서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는 반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관세가 인하되고 있었다. 쇠고기 시장은 수입산끼리 경쟁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통한 관세인하는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낙농품의 경우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입시장에서 미국과의 점유율 확대 경쟁으로 낙농품의 가격 인하가 예상되며 다양한 제품이 공급되어 소비자 후생 증가가 예상된다.

이처럼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의 이점을 살리면서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로 평가된다. 다만 3개국이 모두 선진국 시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구조, 비즈니스 문화, 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한 만큼 각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FTA를 활용할 때 시장 진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연방 3개국은 전통적으로 영국 등 유럽국과와 미국의 영향력을 컸던 시장이지만 최근 아시아와의 교류가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FTA가 체결되었다. 앞으로는 이들과의 FTA를 디딤돌로 삼아 양국의 무역구조가 다변화되고 비즈니스가 다양화되기를 기대해본다.

